

10 오피니언

사설

상향식 의사결정, 지켜야 할 가치

상향식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그 요구가 합당하다면 수용할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캠퍼스는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했다. 2000년대 이전의 학생 운동과 2000년대 이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던 농성 모두 캠퍼스내에 기반을 둔 움직임이었다.

GPA(Grade Point Average, 평균 평점) 백분위 환산식이 개선됐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우리신문의 보도 이후 약 1년 만의 일이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GPA 백분위 환산식이 개선되는 과정은 ‘상향식 의사결정’의 결과다.

GPA 백분위는 학부 성적을 주요하게 평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같은 전문대학원, 약학대학 입시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다. 대학별로 GPA 백분위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학

교는 개선 이전까지 서울권 대학 중 비교적 낮은 GPA 백분위를 산출하는 대학에 속했다.

GPA 백분위 환산식 문제는 기사화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는 관련 게시물로 성시를 이뤘다. 학생들은 총학생회(총학)와 교내 옴부즈맨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양 캠퍼스(양캠) 총학은 교무처와의 TF(Task Force) 안건으로 해당 문제를 다뤘다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보고했다. 당시만 해도 GPA 환산식은 금방이라도 개정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약 4개월 간 GPA 환산식 개정과 관련된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선출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KHU Play’는 GPA 백분위 환산식 개정의 물꼬를 뒀다. 서울캠 총학은 관련 문제를 학사 관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했고 낙후된 학사제도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GPA 백분위 환산식 개선의 주체였던 교무처 역시 총학과 함께 노력을 기울였다. 교무처는 총학과의 여러 차례 면담 끝에 GPA 백분위 환산식 개선을 결정했고, 최종적으로 3가지의 환산식 상향조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양캠 총학이 교무처가 제시한 3가지의 조정안 중 상승의 폭이 가장 큰 조정안을 선택하며 길고 길었던 GPA

백분위 환산식 개선 과정에 마침표가 찍혔다.

캠퍼스에 들리던 학생들의 시위 소리는 시간이 흘러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겨 목소리를 내고 있다. GPA 백분위 환산식 개선은 상향식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문제의 경종을 울린 것은 불리한 학사제도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민원 제기였으며 학생들

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대학 본부로부터 얻어냈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총학과 교무처의 역할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민원제기만큼 중요했다. 특히 초반 여론에 대학본부를 향한 비난이 섞여 있었음에도,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교무처의 열린 자세는 상향식 민주주의의 결과를 만드는 기반이 됐다.

법학적 성시험 응시자 수가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현재, 법전원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GPA 백분위 점수가 상승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학점표준화 제도와 교내 공간 문제 등 학생과 대학본부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GPA 백분위 환산식 개선을 발판 삼아 학교 구성원과 본부 모두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건설적인 개발에 나서길 바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안전한 캠퍼스 위해 경비 점검 필요

경고 신호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낮았던 지난 2년간에도 연간 평균 3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폐쇄회로(CCTV) 확충과 비대면 학기의 지속으로 경비 체계가 미흡해졌다고 지적 한다. 실제로 인하대의 경우 지난 2012년 ‘인력 경비’에서 ‘출동 경비’로 전환함에 따라 경비 노동자의 인원을 절반 이상 감축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새로운 업체와 경비 용역 계약을 맺으며 경비 인원을 소폭 감축한 대신 CCTV를 확충한 바 있다. CCTV 기반의 출동 경비 체계가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700여 개의 CCTV는 한 생명조차 지키지 못했다.

가을학기부터 캠퍼스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그동안 느슨해진 대학 경비 체계가 대면 전환으로 증가할 유동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보장해야 할 대학에서 더 이상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사회가 주는 ‘경고 신호’를 받아들이고, 대학 경비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평 옐로우 카드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준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올니피앤디

세시봉

커피 하우스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주로 일상에서의 화젯거리를 나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카페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렇게 카페라는 공간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과 교류하는 공간의 의미로 확장된다.

이와 같은 개념은 영국 런던의 한 커피집에서 시작됐다. ‘커피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한 가게는 어느새 사교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자유롭게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교역과 정치활동, 그리고 사교와 문학의 넓은 마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커피 하우스’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시초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람과 공간이 주는 힘은 대단하다. 한 공간 안에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만 준다면 ‘커피 하우스’는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어디론가 향하여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곳은 또 다른 ‘커피 하우스’를 탄생케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공간들은 점차 폐쇄되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만남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은 각자의 ‘커피 하우스’ 문을 닫게 했다. 소통은 점차 개인 SNS라는 온라인 공간 안에서만 이뤄지기 시작했고,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는 일어나기 힘들어졌다. 경희대학교라는 이름의 ‘커피 하우스’ 조차 문을 닫아, 우리는 학우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일상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 주변의 ‘커피 하우스’의 문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2학기부터 대면 수업으로의 복귀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우리는 9월에 재개방하게 될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소식을 나누며, 학우들과 교류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커피 하우스’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회의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든 주제는 상관없다. 학우들이 모이게 될 캠퍼스에서 마음껏 소통하기를 바란다. 세상의 크고 작은 ‘커피 하우스’들이 번창 하길 기대한다.